

나agai 가문은 원래 미노국(기후현 남부)의 슈고다이(守護代: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직무)였던 사이토 가문의 가신이였다. 나agai 가문은 사이토 가문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권력을 장악하고 1525년 말까지 사이토 가문을 완전히 쓰러트렸다. 나agai 가문의 일원으로서 이 정쟁에 참여한 나agai 신자에몬노조(생몰년 미상)는 본래 무사 출신이 아니라, 교토에서 승려로 성장하여 기름 장수로 성공했다가 후에 나agai 가문에 가담한 경력을 지닌 인물이다. 이후 신자에몬노조는 나agai 가문의 가신이 되어 이나바 산성을 거성으로 삼았다. 신자에몬노조의 아들인 사이토 도산(1494~1556)은 1533년에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나바 산성을 물려받았다.